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기호 연구

Study on the Symbol of Comics frames of 'The Sequel to the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박경철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Keong-Cheol Park(manphist@hanmail.net)

요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적인 세계 만화역사와 국내 만화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만화역사의 시작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고 보는 경향들이 있다. 물론 몇몇 연구를 통한 과거의 흔적에서 우리의 만화역사라고 주장하지만, 대중적인 동의를 폭넓게 얻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만화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만화의 족적을 더듬어 근거를 찾고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다. 기록되어 남아있는 역사를 만화역사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에는 여러 만화기호의 원형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만화칸 기호와 유사한 만화칸이 모든 그림에 그려지고 있다. 이는 국내 만화역사로 주장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속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만화기호 중에서도 '만화칸' 기호를 분석한 논문이다. 조선시대의 만화칸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만화역사에서 조선시대 만화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조선시대 만화칸의 기호적인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만화를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이들에게 만화역사로 인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 중심어 : | 삼강행실도 | 속삼강행실도 | 만화칸 | 칸 |

Abstract

The world history of modern comics is not too long. So is the domestic history of modern comics. Besides,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domestic history of comics has developed with introduction of foreign materials. Even though a few argue that the domestic history of modern comics had a sheer background with our tradition, this argument is considered as a kind of minority. Obviously, it is not easy to argue something with valid grounds in the field of comics history. It is needed to provide valid grounds of comics history from our history. Several symbols of comics were found in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and 'The Sequel to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Joseon. Particularly, comics frames were used to explain the contents in two books. This supports the fact that Korean comics history has its own base in the tradition.

This study is on the analysis of 'comics frames' among symbols of comics in 'The Sequel to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It is said that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helps get a real idea of comics history of Joseon by studying the symbolic meaning of comics frames used in this period. On top of that, the result of the study that focuses on the symbolic meaning of comics frames in Joseon is expected to be used as a kind of comics history for the people who have a passion for comics.

■ keyword : |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 The Sequel to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 Comics Frame | Frame |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는 목판인쇄술과 금속인쇄술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인쇄물 중에서 만화원형으로 보이는 인쇄물이 있는데, 고려의 <십우도>와 조선의 <삼강행실도> 및 <속삼강행실도>가 만화원형의 기호를 가진 대표적인 인쇄물이다. <십우도>는 한 면(面)이 ‘한 칸의 그림’과 ‘글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 면의 연속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는 ‘여러 칸의 그림’과 ‘글칸’으로 구성된 형식이다. 그림만을 비교하면 <십우도>에서는 한 편의 이야기가 한 면에 한 칸의 그림씩, 총 열 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에서는 한 편의 이야기가 한 면에 두 칸에서 여섯 칸까지의 그림으로 구성된다는 차이가 있다. 하나의 그림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만화기호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현대적인 만화기호 중에서 만화 매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가 ‘만화칸’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는 삽화에서 벗어나,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임스 길레이의 간행물 <영국인의 진보>에서 만화칸이 등장하는 시기는 1793년이다.[1] 이에 반해 만화칸의 원형이 등장하는 <삼강행실도>는 1434년에 간행되었으며, 속편인 <속삼강행실도>는 1514년에 간행되었다. 마치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목판인쇄술과 금속인쇄술의 국내 역사처럼 만화칸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림 1. <영국인의 진보>와 만화칸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에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는 만화칸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만화역사에서 만화칸의 기호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역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세계사적으로 앞선 시기에 나타난 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에 만화칸 기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만화를 공부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이들에게 국내 만화역사 속에서 오래된 역사적 뿌리를 인식하게 하고 인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본 연구는 만화원형으로 주장하는 조선시대의 만화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만화역사에서 자리매김할 조선시대 만화역사를 분명히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큰 맥락에서 만화의 원형임을 밝히고 세부적인 기술에서는 만화라고 기술함으로써 만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는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이 비록 <속삼강행실도>이지만 앞선 시기에 인쇄된 <삼강행실도> 대신으로 만화역사의 근거를 찾아 주장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역주된 <속삼강행실도>로 대신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었다. 첫 번째,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것을 만화로 주장하기 때문에 만화원형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만화 연구자의 관점에서 ‘만화원형’을 사용하거나 붙이는 대신에 ‘만화’ 혹은 ‘만화역사’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속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만화기호 중에서 만화칸 기호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세 번째,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순서를 밝히기 위해서 언해문의 현대적인 역주를 중심으로 하였다.

네 번째,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을 ‘유형의 만화칸’과 ‘무형의 만화칸’으로 구분하였다. ‘유형의 만화칸’에는 선으로 표현되는 구름과 집, 담, 능선 등이 있다. ‘무형의 만화칸’은 선에 의한 칸의 모양은 아니지만 이야기 전개와 여러 특징들을 고려한 만화칸이다.

다섯 번째, [표 1]의 숫자는 책 페이지이며, [그림 2]는 p.268, [그림 3]은 p.260, [그림 5~6]은 p.354, [그림 7] [그림 15]는 p.308, [그림 8]은 p.256, [그림 10] [그림 19]는 p.310, [그림 11]은 p.312, [그림 12]는 p.280, [그림 13]은 p.304, [그림 14]는 p.298, [그림 16]은 p.296, [그림 17]은 p.369, [그림 18]은 p.336이다.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은 초기 모양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개념의 만화칸과는 모양과 순서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 이에 연구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를 기준 삼아 연구하였다. 첫 번째, 만화칸의 개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만화칸의 개수를 밝히는 것이 칸으로서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만화칸의 순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순서는 언해문의 역주를 이야기 순서로 보고, 만화칸의 순서를 분석하였다.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만화칸의 순서는 현대적인 만화칸의 순서와 많이 다르다. 현대적인 만화칸의 보는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라는 규칙이 있는 반면에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에서는 당시의 시대에 맞는 규칙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적인 만화칸의 순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 중에서 묘와 홍문, 집이 대표적이다.

II. 속삼강행실도와 만화칸 기호

1.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기호

[그림 2]에서 <속삼강행실도>의 만화기호는 크게 보편 글칸(A)과 그림칸(B)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칸을 현대적인 만화 기호에 비유하면, 말풍선이나 지문박스의 글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이야기' 자체이자 해설에 가깝다.

그림칸에는 만화 기호 요소인 글 기호와 그림 기호가 있다. 글 기호에는 '주인공 이름', '이야기 제목'이 있으며, 그림 기호에는 캐릭터와 구름, 집, 담, 능선 등이 있다. 특히 구름이나 집, 담, 능선 등은 자주 만화칸으로 사용된다. 또한 눈여겨볼 특징은 주인공 옆에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와 다르게 당시에는 만화 속 캐릭터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캐릭터와 구분할 수 있는 외형적 특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 옆에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속삼강행실도의 만화기호, <한구소식>

그림 3. 만화칸 기호, <조아복수>

[그림 3]에서 [그림 2]와 기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만화칸이다. [그림 2]의 만화칸이 배경의 능선을 자연스럽게 칸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그림 3]의 만화칸은 인위적인 구름 기호를 등장시켜 칸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구름 기호는 칸으로서의 특징이 분명하여, 현대의 만화칸과 기표적으로는 다르지만 기의적으로는 같다는 속성을 가진다.

2.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형태

2.1 유형의 만화칸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에는 ‘유형의 만화칸’과 ‘무형의 만화칸’이 있다. 대다수 만화칸은 ‘유형의 만화칸’이며, 집, 담, 능선 등의 선을 만화칸으로 이용한 ‘배경선의 만화칸’과 인위적인 구름 모양의 선을 만화칸으로 이용하는 ‘구름선의 만화칸’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2]는 ‘배경선의 만화칸’만으로 나뉜 만화이며, [그림 3]은 ‘구름선의 만화칸(구름칸)’으로 나뉜 만화에 해당한다. [그림 2]와 [그림 3]의 ‘유형의 만화칸’을 현대적인 만화칸에 비유하면 [그림 4]처럼 한 칸씩 상하 구조의 만화칸이 된다.

그림 4. 한 칸 상하 구조의 만화칸

<속삼강행실도>의 칸 나누기는 큰 칸과 작은 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그림 5]는 [그림 4]의 단순하지만 명확한 한 칸씩 상하 구조의 만화칸과는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한 만화칸을 사용한다. A는 [그림 4]처럼 ‘배경선의 만화칸’과 ‘구름선의 만화칸’만으로 큰 칸을 나눈 예이다. 배경선과 구름선의 만화칸이 상하 만화칸의 큰 구분을 한다.

B는 A의 만화칸에서 다시 작은 칸으로 나뉜 예이다. 큰 칸 안에는 작은 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주인공 이름’의 개수로 작은 칸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수평의 그림 안에 주인공 이름이 두 번 명기된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이는 연속된 장면임을 의미한다. 또한 칸의 역할을 하는 일정한 구획에 의해 작은 칸으로 나뉜다. 주인공 캐릭터가 방과 같은 일정한 구획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칸의 형태가 된다.

그림 5. 삼강행실도의 칸 나누기, <마씨투정>

[그림 6]에서 ‘배경선의 만화칸’과 ‘구름선의 만화칸’ 및 ‘주인공 이름’과 ‘칸 역할의 일정한 구획’에 의해 A를 현대적인 만화칸인 B에 비유할 수 있다. 상단과 중단에 각 두 칸씩 ‘수평 구조의 만화칸’이 포함된다.

그림 6. 두 칸 수평 구조의 만화칸, <마씨투정>

[그림 7]은 [그림 5]와 [그림 6]의 과정처럼 나뉜 칸이다. 중단과 하단은 작은 칸으로 나뉘는데, 특히 중단은 3개의 칸으로 나뉜다. 중단에 세 칸의 ‘수평 구조의 만화칸’이 포함된다. 이를 현대적인 만화에 비유하면 ‘6칸 만화’가 된다.

그림 7. 세 칸 수평 구조의 만화칸, <조금획록>

2.2 무형의 만화칸

무형의 만화칸은 유형의 만화칸과 달리 칸을 나누는 선은 없지만 이야기와 주인공 이름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칸으로 구분하는 만화칸이다.

연속 이야기이거나 연출의 특성상 만화칸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름이 표기된 두 개의 캐릭터

가 있는데, 이들은 주인공이자 동일인물이다. 이름은 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의 하나가 된다. 비록 단편선으로 구분하는 칸은 아니지만 주인공 이름으로 칸의 구분을 하게 되는 무형의 칸인 셈이자 ‘열린 칸’이다.

[그림 8]에서 A는 ‘배경선의 만화칸’과 ‘구름선의 만화칸’으로 구분하면 2칸이지만 무형의 만화칸까지 포함시켜 3칸이 된다. 상단 칸에서 주인공 이름이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있다. 이와 같은 연출은 연속된 이야기일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또한 <속삼강행실도>에서는 연출의 특성에 따라 무형의 만화칸 연출을 사용하기도 한다. p.256, p.282, p.296, p.304, p.312, p.330, p.375, p.381, p.383, p.387의 총 10편에서 무형의 만화칸이 등장한다.

그림 8. 무형의 만화칸, <왕중감전>

3.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순서

만화를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넘긴다’, ‘위에서 아래로 본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본다’, ‘밑의 칸으로 내려갈 때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본다’ 등의 대다수 작가와 독자가 선호하는 방향과 순서는 기호화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속삼강행실도>에서는 방향과 순서가 현대와 같지 않다. 얼핏 보면 일정한 규칙이 없이 무질서하게까지 보인다. [그림 9]는 [그림 2]와 [그림 3]의 순서를 표기한 것이다. 이 예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처럼 규칙이 있는 듯하다.

그림 9. 만화칸 방향과 순서

만화칸의 순서를 밝히는 과정에서 <속삼강행실도>의 규칙 몇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묘와 홍문이 대표적이다. 당시의 도덕과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권장하는데 있어서 부모님의 묘와 조정에서 내린 홍문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3.1 만화칸과 묘

묘의 위치는 순서와 무관하게 항상 최상단에 배치된다. ‘북망산천’의 사자성어나 북쪽 방향으로 차리는 제사상처럼 만화칸에서도 최상단이 북쪽 방향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묘의 위치가 순서와 무관하게 최상단에 배치되다 보니, 순서가 흐트러지는 원인의 중의 하나가 된다.

[그림 10]에서 묘는 최상단인 4번 칸에 있다. 현대적인 만화 순서(위에서 아래 방향)로 보면, 순서는 4 → 1 → 3 → 2번 칸이 된다. 최상단에 묘를 배치(4번)하고 하단에는 강을 배치(2번)하였다. 중단에는 이야기 순서로는 바로 연속적이지는 않으나 동일한 집이 배치(1, 3번)된다. 즉 필요에 의한 배치이기에 현대적인 만화칸의 순서와는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 묘와 순서 1, <서만득어>

[그림 11]에서 1번 칸에서 2번 칸으로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다. 그런데 순서상 4번과 5번 칸이 뒤바뀌어있는데, 이는 최상단에 배치되는 묘가 이야기 순서로 보면 4번째이기 때문이다.

그림 11. 묘와 순서 2, <응정도천>

[그림 9]처럼 일련의 순차적인 순서를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 10]과 [그림 11]처럼 순서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순서와 무관하게 묘를 최상단에 배치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는 만화칸 기호이자 맞는 순서이다. p.256, p.262, p.266, p.268, p.270, p.274, p.276, p.278, p.280, p.286, p.294, p.296, p.300, p.302, p.304, p.306, p.310, p.312, p.316, p.318, p.322, p.324, p.326, p.342, p.344, p.369, p.373, p.375, p.377, p.383의 묘가 등장하는 총 30편 모두에서 최상단에 배치되고 있다. 이때의 만화칸 방향과 순서는 현대적인 기호의 관점과는 다르며, 당시의 기호적인 관점에서 맞는 순서인 것이다.

3.2 만화칸과 홍문

홍문은 나라에서 세운 문으로서, <속삼강행실도>에서는 묘와 함께 상징적인 만화 기호로 그려지고 있다. 홍문은 정문 앞에 세우는 문이기에 집과 함께 그려진다. 이로 인해 순서와 무관하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홍문은 <속삼강행실도>의 순서를 밝히는 과정에서 묘와 함께 주의해야하는 기호이다.

[그림 12]에서 2번 칸은 ‘홍문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홍문만 부각된 만화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담과 능선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12. 독립된 만화칸의 홍문, <방계수상>

그림 13. 무형의 만화칸의 홍문, <우명순효>

[그림 13]처럼 연출에 따라 무형의 칸에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묘가 최상단에 놓이는 반면에 홍문은 집과 함께 그려지므로 하단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야기 순서상으로는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문이 있는 칸은 마지막 칸(5번)이 된다.

p.256, p.258, p.262, p.272, p.274, p.280, p.288, p.294, p.312, p.314, p.316, p.324, p.326, p.344, p.356, p.359, p.361, p.363, p.369, p.371, p.381, p.385, p.391, p.393에서 홍문은 독립된 만화칸에 24편 그려진다. 이에 반해서 p.284, p.304, p.346, p.387에서 홍문은 무형의 칸에 4편 그려지며, 예외적으로 p.290과 p.367에서 홍문은 3번 칸과 4번 칸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3.3 만화칸과 집

이야기 흐름상 집 안에서의 이야기를 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집일 경우 순서와 무관하게 가까이 배치하고 있다. [그림 10]의 1번과 3번 칸은 같은 집 안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순서와 무관하게 가까이 배치하고 있다. 이는 <속삼강행실도>의 칸의 연출에 있어서 규칙적인 셈이다.

[그림 14]는 동일한 집이 배경이며, 지붕을 포함하는 집의 외곽선이 칸의 역할을 하고 있다. 1번과 2번 칸의 연출은 ‘주인공이 집 옆에 있는 장면’ 다음에 ‘약을 어머니께 드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2번과 3번 칸의 집은 동일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채의 다른 집이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14. 집과 만화칸 1, <속함시약>

그림 15. 집과 만화칸 2, <조금씩>

[그림 15]에서 1번, 2번, 4번 칸의 집은 동일한 집의 방이다. 하단의 1번과 2번 칸은 연속 칸의 연출이며,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의 4번, 5번, 6번 칸 또한 연속 칸 연출이자 나란히 배치된다. 5번 칸은 부엌으로서 4번 칸의 방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 칸도 동일한 집이지만 구름칸으로 구분한 것은 특별한 사건임을 상징하기 위한 장치로 연출하기 위함이다. 즉 아버지의 임종을 연출하기 위한 중요한 장면인 것이다.

[그림 14]와 [그림 15]에서 집의 외곽선이 칸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그림 16]은 1번과 3번 칸의 집밖에 있는 주인공으로 인해 무형의 칸이 포함된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연출 특성상 집의 외곽선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다. 집 안에서의 연출은 집의 외곽선으로 칸의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의 만화칸이 있을 경우에도 구분하기가 쉬우며, 유형의 만화칸으로 구분해도 무방하다. p.282, p.296, p.312, p.381은 집 안에서의 무형의 칸이 등장한다.

그림 16. 집과 무형의 칸, <구손연웅>

4.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연출

<속삼강행실도>의 가장 특징적인 만화 연출은 순서와 무관하게 배치되는 듯이 보이는 묘와 홍문 및 집과 구름을 들 수 있다. 앞의 묘와 홍문, 집의 배치는 조선 시대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나름의 규칙이 있다. 반면에 구름칸은 의도적인 칸으로서의 연출이라는 점에서 현대적인 만화기호에 가깝다.

4.1 구름칸의 기호적 의미

[그림 17]에서 구름칸에 의해 나뉜 칸은 1번과 3번 칸이다. 이들 칸에는 동일한 집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만화칸이나 배경선의 만화칸이 아닌 구름선의 만화칸으로 나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집이나 능선의 외곽선에 의해 칸으로 나뉘지는 것과 다르게 구름칸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간이며 두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1번 칸은 ‘남편이 죽고 없는 틈을 타서 치근대는 남자’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3번 칸은 ‘남자들을 피하여 목매다는 주인공’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두 상황은 동일한 집을 배경으로 하며,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두 칸을 구름칸으로 나뉘둠으로써 1번과 3번 칸 사이의 2번 칸에 의한 시간의 흐름과 ‘능욕에 대한 정절’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17. 구름칸 기호, <김씨자백>

[그림 18]의 중단에는 구름칸 외에 산과 능선이 있지만 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구름칸만이다. 여기서의 산과 능선은 2번 칸의 배경이지 칸은 아닌 것이다. 구름칸에 의해 1번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순에 따른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과 시간의 변화가 있으며 다른 배경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구름칸

은 만화칸에 있어서 중요한 칸의 기호로 작용한다.

그림 18. 구름칸 기호, 〈운혁토적〉

4.2 구름칸과 순서

[그림 19]의 현대 역주(p.66)는, “(가)서만이는 목천 사람이다. 아비를 섬기되 매우 효도하여 달 초하루면 반드시 술과 차반을 장만하여 공양하더라. (나)아비가 병을 얻어서 물고기를 먹고자 하니 바야흐로 추운 대이 거늘 만이 얼음을 두드리고 하늘께 비니 고기 네 마리가 뛰어나오거늘 (다)가져와 (라)먹이니 병이 즉시 좋아졌다. (마)후에 아비 죽거늘 삼 년 시묘하여 손수 제 사음식을 만들고 한 번도 집에 오지 아니하더라. 성화 경자에 여쭙거늘 벼슬을 하게 하시었다.”이다.

A는 하단을 1번 칸으로 해석(나)하여 위로 올라가는 순서(나다라마 순)이다. 그에 비해 B의 1번 칸은 A의 3번 칸이다. 이처럼 A와 B의 순서를 분석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자주 발생하며,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분석은 중요한 문제이다. A에서 2번 칸과 3번 칸 사이에 구름칸이 있다. 이 구름칸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순서는 B가 된다. 구름칸에는 목적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구름칸에 의한 시간의 변화와 함께 동일한 집과 사람이지만 구분을 하고자하는 의미가 있다. B에서 1번 칸은 (가)에 해당한다. 즉 ‘술과 차반을 공양한다’는 내용이다. 순서는 ‘가나다마’ 순으로써 (라)가 없는 셈이다. 이처럼 구름칸은 순서를 분석하는 중요한 기호이다.

그림 19. 구름칸 기호, 〈서만득어〉

III. 결론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에서의 만화칸은 현대적인 만화칸으로서의 수평선이나 사선이 아닌, 배경선(집, 담, 능선 등)과 그룹선의 모양이다. 모양과 순서에서 현재의 만화칸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만화칸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개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만화칸과 무형의 만화칸 및 묘와 홍문의 칸으로서의 여부, 이야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칸을 사용하는 예는 없었으며, 적어도 2칸에서 많게는 6칸까지 만화칸을 사용하고 있다.

[표 1]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의 칸은 3칸으로써 25편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으며, 36.23%이다. 그 다음은 4칸으로써 18편이며, 26.08%이다. 다음이 2칸으로써 13편이며, 18.84%이다. 2칸에서 4칸까지가 56편이며, 81.15%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속삼강행실도>와 현재의 만화 사이에는 가독성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의 만화는 방향과 순서, 기호의 모양 등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속삼강행실도>에서는 현재의 관점과는 분명 다른 기호적 특성이 있다. 이는 당시 시대에 맞는 방향과 순서이다. 현재의 관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시도와 노력에 의해 우리 만화역사의 근거는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수

2칸	3칸	4칸	5칸	6칸
262/272/2 76278/280 /294300/3 14/332334 /338/352/ 385	256/258/2 60268/270 /282286/2 88/290292 /298/3223 24/336/34 6350/361/ 365371/37 7/379383/ 389/39339 5	274/284/2 96302/310 /318320/3 26/330348 /356/3583 59/363/36 7373/381/ 391	304/306/3 12316/344 /354369/3 75/387	264/266/3 08342
13편	25편	18편	9편	4편

참 고 문 헌

- [1] 로저 새빈,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발, p.13. 2008.
- [2] 정우영, *역주 속삼강행실도*, 한국문화사, 2008.
-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 [4] 박경철, *카툰기호의 의미작용 연구*, pp.41-46, 공주대학교, 2011.

저 자 소 개

박 경 철(Keong-Cheol Park)

정회원

- 1995년 2월 : 공주문화대학 만화예술과
 - 1998년 2월 :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미술학사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만화예술학과 미술학석사
 - 2011년 2월 : 공주대학교 만화학과 만화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 1997년 ~ 1999년 : 포토샵 5권 저술(영진·크라운출판사)
 - 1995년 8월 : SICAF 애니메이션 신인상
- <관심분야> : 디자인, 만화, 영상, 콘텐츠, 캐릭터